

# ‘한송이 꽃’ 피우려 1초도 아꼈던 큰 스승

## 승산당 행원 대중사 행장

“세상에는 뛰어난 인물들도 많 않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승산 스님처럼 참 자신을 깨닫게 도와주는 이들이야말로 인간 잠재능력의 최선을 이끌어낸 사람들과 비교됩니다. 제게도 그 흉내라도 낼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도을 김용욱(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중)

### 세계 4대 생불로 추앙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캄보디아 종정 고사난다, 베트남 출신 프랑스 펠름빌리지 탁발승과 함께 ‘살아있는 4대 생불(生佛)’로 추앙받았던 승산(崇山)당 행원(行願) 대중사는 1927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출생했다.

일제 강점기인 44년, 스님은 지하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가 일본 헌병대에 체포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감옥에서 나온 후 만주국경을 넘어 독립군에 합세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46년 동국대 국문학과에 입학했지만 불교에 뜻을 두게 된다.

그때 한 친구가 스님에게 <금강경>을 건넸다.

“무릇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다. 만일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이 모양이 아님을 알면 그가 곧 부처이니라.(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非相 即見如來)”

<금강경>의 이 구절이 스님의 마음에 와 닿았다.

“아아, 바로 여기가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동양철학이 일치하는 곳이구나. 불교의 골수가 여기에 있구나.” 스님은 47년 공주 마곡사로 출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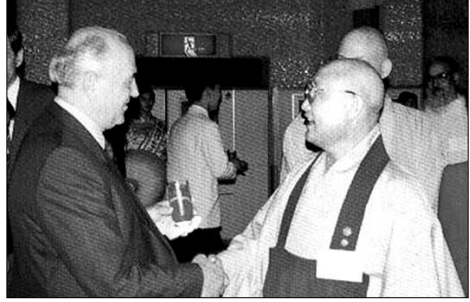
스님은 출가한 지 열흘 만에 원각산 부용암에서 백일기도에 들어갔다. 숲길을 달려 땀은 가루를 먹으며 매일 20시간 동안 신묘장구대다라나 기도를



원각산 석주 스님(사진 오른쪽)과 법담을 나누고 있는 승산 스님.



같은 '4대 생불'로 추앙 받았던 고사난다 스님(사진 오른쪽)과 함께 한 승산 스님.



승산 스님이 구 소련 대통령인 고르바초프와 세계평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했다.

기도 100일째, 스님은 암자 밖으로 나와 목탁을 두드리며 염불을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자신이 몸을 떠나서 무한한 공간에 있음을 느꼈다. 뿐만 아니라 저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목탁 소리와 자기 음성도 들을 수 있었다. 잠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같은 체험을 한 뒤 스님은 다음과 같은 오도송을 읊었다.

원각산하비금로(圓覺山下非金路) 배낭행객비고인(背囊行客非古人) 탁탁이성관고금(濯濯履聲貫古今) 가가오성비상수(可可鳥聲飛上樹) 원각산하 한길은 지금 길이 아니건만 배낭 메고 가는 행객 옛 사람이 아니라 탁, 탁, 탁, 걸음소리는 옛과 지금을 꿰었는데 깎, 깎, 깎, 까마귀는 나무 위에서 날더라

### 고봉 스님에게 인가 받아

춘성·금봉·금오 스님께 인가를 받은 승산 스님은 고봉 스님을 찾았다.

고봉 스님 앞에 절을 올린 후 “제가 어제 저녁에 삼세제불(三世諸佛)을 다 죽였기 때문에 송장을 치우고 오는 길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봉 스님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하고 말했다.

승산 스님은 절망에서 오징어 한 마리와 소주 한 병을 꺼냈다.

“송장을 치우고 남은 것이 있어서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한 잔 따라라.”

“잔을 내 주십시오.”

이 말에 고봉 스님이 손바닥을 내밀었다. 스님은 술병으로 고봉 스님의 손을 치우고 장판 위에 술병을 내려놓았다.

“이게 스님의 손이지 술잔입니까?”

고봉 스님이 빙긋이 웃었다.

이렇게 몇 차례 문답이 오고간 뒤, 고봉 스님은 환하게 웃으며 승산 스님을 열차안고 말했다.

“네가 꽃이 피었는데, 내가 왜 네 나비 노릇을 못하겠느냐?”

49년 1월 25일, 스님은 고봉 스님에게 ‘승산’이라는 당호를 받았다. 나이 22살 때였다.

일제 법은 나지 않고 일제 법은 멸하지 않는다.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법 이것을 이듬하여 바라림이라 한다. (고봉 스님에게 받은 전법계)

### 32개국 120여곳 선원 개원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부처님 법을 전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전 세계로 한국선불교를 전파한 ‘한국의 달마’ 승산 스님. 1966년 일본 흥법원 개원을 시작으로 35년 만에 전 세계 32개국에 120여개의 흥법원을 개설하고 5만여 누푸른의 남자와 제자들을 두었다.

62년 조계종 비상종회의장과 통합종단 비상종회 초대 의장을 역임한 뒤, 스님이 조계종 총무부장 소임을 맡고 있을 때였다. 동국대 기숙사를 짓기 위해 공사를 하던 중 지하에서 일본인 유골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스님은 유골을 화계사에 안치했고 이 소식이 일본에 알려지면서 일본 불교계 초청으로 도쿄를 방문했다. 이를 계기로 부처님 자비정신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한 스님은 도쿄에 흥법원을 개설한 뒤 69년 홍콩, 72년 미국에 흥법원을 열면서



승산 스님은 해외포교 35년 만에 전 세계 32개국에 120여곳의 흥법원을 개설하고 5만여 남자와 제자를 두었다. 사진은 2001년 무상사 동안계 결계법회에서 스님이 제자들에게 큰 권력을 세우고 열심히 수행하 것을 당부하고 있는 모습.

본격적으로 해외포교에 뛰어들었다.

승산 스님은 당시 한국불교 최초로 폴란드를 비롯해, 중국, 구 소련 등 공산권에서 법문을 했다. 아프리카권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포교 활동을 했다. 이처럼 스님의 해외포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했기 때문’이다.

승산 스님은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그 나라의 법칙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는 특별한 통제와 간섭이 필요 없어요. 목탁을 치고 설법 준비를 하기도 전에 미리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기다립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경우는 반대예요. 시간이 다 왜야 어슬렁어슬렁 모입니다. 그게 바로 그 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나라마다의 각기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야만 포교가 가능해요”라고 생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다.

스님의 이 같은 지론에는 원칙이 있었다. 스님은 “우리 것 중에서 좋은 것은 반드시 지키고 남의 것 중에서도 좋은 것은 대범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양의 정신과 소중한 전통을 버리고 서구를 따르는 것은 인류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 생활 자체가 가르침

무엇보다 스님의 가르침이 전 세계에 퍼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스님 생활 자체가 그대로 가르침이며 귀감이 됐기 때문이다.

오래 전 스님이 제자들과 멕시코에 갔을 때의 일이다. 어느 곳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제자 대봉 스님(무상사 조실)이 숙소를 찾아왔다. 그때 스님은 잠에서 깨어나 숙곳 차림으로 대봉 스님을 반갑게 맞았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다른 스님이 승산 스님을 찾아왔다. 스님은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반갑게 맞았다. 잠시 후 한국인 제자 스님이 승산 스님을 찾아왔다. 승산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고리와 마고자를 차려입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

각이 저마다 어떻게 다른지 헤아리는 스님은,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따라 웃어주는 그 한 가지에도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한 것이다.

### 가르침의 핵심 ‘오직 모를 뿐’

스님은 평소 ‘알’을 가장 경계했다. 알이란 마음이 제멋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며 분별해 만든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혼란을 조성하고, 그 여파로 우리 스스로와 남들의 고통까지 낳는다는 것이다. ‘오직 모를 뿐(only don't know)’이란 말은 승산 스님 가르침의 핵심이자 바로 ‘선의 나침반’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이른 바 ‘승산 가풍’을 낳았다. 승산 가풍은 남녀노소나 승속을 따지지 않는다. 오로지 수행만을 강조할 뿐이다. 합리와 이성으로 곁들여진 서양 사람들에게 스님은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다.

이 질문은 그들에게 자신의 머리 속에 가득 채워진 지식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들은 충격을 받는 한편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닫는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스님은 ‘오직 모를 뿐’인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대화의 바탕을 미국식으로 ‘공안 인터뷰’라고 한다. 이 공안 인터뷰의 특징은 스승과 제자가 마주한 그 순간의 상황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곧 진리임을 스스로 체득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 ‘世界一花’에 일평생 바쳐

스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전 세계 5만 여명의 제자들을 배출했다.

우리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허버트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자 스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전 통 한국사찰 ‘태고사’를 건립중인 무상 스님, 화계사 국제선원장으로 있으며 승산 스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무심 스님, 베트남전 반대 운동

을 하다 승산 스님의 설법을 듣고 출가한 대봉 스님, 프라비던스 선원 소지자인 ‘프라이머리 포인트’ 편집자 엘렌 사이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스님은 저서 <부처님께 제를 올림> <선의 나침반>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 <천강에 비친 달> 등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했다.

세상은 하나의 아름다운 꽃과 같다는 뜻인 ‘세계일화(世界一花)’.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아무런 말 없이 꽃 한 송이를 드셨고, 해방 후 만공 스님이 무궁화 꽃으로 세계일화라고 쓰기도 했다. 이미 세상을 내다보고 세계일화가 되어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스님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1년에 지구 세 바퀴를 돈 적도 있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가네. 동서남북 지구촌을 돌고 돌아 35년 올바른 생활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렸네. 허무한 세상을 실제의 세계로, 실제의 세계를 실상의 세계로, 실상의 세계를 실용의 세계로 세세상향 대보살도를 성취하려고 일본일초도 설 사이 없었네.”(해외포교 35주년 기념법어 중)

### “만고광명이요, 청산유수니라”

‘한국불교 해외포교의 역사’ (前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 ‘세계와 한국에서 제1조와 제28조 여래의 정법을 펴는 불기결한 정신적 기둥’ (고은 시인) 이라 평가받았던 승산 스님. 85년 세계평화문화인대회(WUM)에서 세계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스님은 별도의 인증서를 남기지 않았다.

원칙을 앞두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다.

“큰스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제자들의 물음에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답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만고광명(萬古光明)이요, 청산유수(靑山流水)니라.” 스님은 자재로운 미소를 지으며 열반에 들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opia.com

## 인터뷰

### 외국인 상좌 현각 스님



## 편안하게 떠나시는 모습 잊지 못할 감동

“큰스님이 주셨던 가르침 ‘오직 모를 뿐’이라는 진리에 대한 큰 깨우침은 영원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국내외 외국인 스님들은 평소 정신적 의지처로 여겨왔던 승산 스님의 원적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승산 스님의 분향소가 마련된 수덕사에서 만난 현각 스님은 은사 스님과 인연 있는 종단의 크고 작은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경황이 없었다. 지금까지 자신의 부모님 잃어 본적도 없는데다 이처럼 가까이서 모셨던 분을 떠나보낸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다.

11월 30일 승산 스님의 입종을 지켜본 현각 스님은 당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스님처럼 열심히 수행하신분의 마지막 순간은 방안 가득히 환한 기운으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 말할 수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떠나시는 스님의 모습은 잊지 못할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승산 스님은 제자들에게 ‘걱정하지마라, 걱정하지마라 오직 모르는 것을 걱정하라’며 상좌들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15년 전 처음 승산 스님을 만난 뒤

출가에 길에 들어섰던 현각 스님은 “마치 소화력이 약한 아기를 위해 부드럽고 영양 있는 이유식을 먹이듯 어머니 마음으로 한국불교를 전해 주셨다”며 스승의 지난 모습을 회고 했다. 5일 장을 지르느라 분향소를 한 시도 떠나지 못했던 현각 스님은 “승산 스님이 계셔서 우리가외국인 수행자들’ 있었는데 스님이 떠난 자리를님은 제자들에게 ‘걱정하지마라, 걱정하지마라 오직 모르는 것을 걱정하라’며 상좌들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15년 전 처음 승산 스님을 만난 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opia.com

## 존 케리 추도문



### 아들의 삶에 큰 변화 주신 대선사님...

친애하는 여러분, 승산 대선사와 함께 뜻을 같이하여 온 모든 분들께 애도를 전하며 기원합니다. 승산 대선사는 젊은 시절부터 전 세계에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새로운 혁신을 일으켰고, 캄보디아 선원과 각 나라에 100개가 넘는 선원을 건립하여 무수한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와 고요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 가족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존(John)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승산 대선사의 가르침은 존의 삶에 큰 변화를 주었고, 계속적으로 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은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그가 가족과 딸에게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나눠주었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면서

보여준 모습에서 승산 대선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 저와 아내 테레사(Teresa)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애비는 이 애도의 시간동안 평안을 빕니다. 비록 승산 대선사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대선사님이 남기신 가르침과 정신적 유산을 통해 계속적으로 영적인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의 스승이신 고봉 큰스님이 승산 대선사에게 법을 전하며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500년 후에 다시 만날 것이다”고 하신 말씀을 빌어 다시 한번 저의 애도를 전합니다.

마음을 모아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 상원의원 존 케리 드림